

총신 총장선거, 정년 문제로 또 좌초

65세 교원 정년 논란에 후보 추천도 못해

총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운영이사회가 28일 오후 총신대학교 강당에서 열렸지만 권영식 장로 이사 자격 논란, 65세 정년 논란에 부딪혀 3시간 동안 격문을 벌이다 또 다시 총장 선출에 실패했다.

65세 정년 논란으로 총신대 총장 선출이 또 다시 연기됐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 재단이사

년이 끝나면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며 "총회가 만 70세 정년을 71세 하루 전까지로 결정했다고 합의라도 제93회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이사 회계 권영식 장로는 "나는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내년까지다. 정년도 93회 총회가 있을 후 정년이 71세 마지막 날까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를 갖게 된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그런 결정이 될 때 운영이사로서의 총장 투표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후 권 장로의 회원권 문제로 1시간 반가량 난상토론을 벌였다. 양측이 점에 맞게 격문을 벌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백남선 목사가 "오늘은 총장을 뽑기 위해 모인 날이니 최소한이라도 권영식 장로가 회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영식 장로는 "내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오늘 투표를 해서 시비가 왜 총장선거를 못하게 되면 나는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격은 있지만 투표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말했고 권 장로의 회원권과 관련한 논란이 끝났다.

권 장로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이번에는 교원 임기 65세 정년 문제가 불거졌다. 재단이사 이경원 목사는 "국가고등교육법에 대한 정의는 교원의 임기는 65세다. 총장이 되려면 61세 되는 총장을 후보로 세워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총장을 뽑는다고 할 때, 65세가 넘는 분들, 61세가 넘으면 우리 정관에 의하면 임후보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학교 정관에 총장은 예외

로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예외조항 없이 총장을 뽑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한 것이다. 정관을 변경한 후에 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관 목사는 "한 달 후면 총회 전이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최창민

다. 그쯤이면 모든 절차가 충분히 끝난다. 법적 소송돌이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부 인준을 받아서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하면, 재단이사들이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며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인 논쟁을 가급적 축소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한 달 후에 다시 모여 투표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종규 목사가 "재단이사회 정관을 수정한 후에 선출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이사들이 동의해 법적인 문제를 정리한 후에 다시 모여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반년여 만에 열린 운영이사회는 총장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본지 제휴 뉴스파워제공



▲ 권영식 장로 이사자격 논란

들을 중심으로 권영식 장로의 이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우 목사는 "재단이사회 정관에는 정년이 4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는 70도 정년으로 돼 있다. 최근 홍광 장로 소송에 의해 정년과 임기가 같은 단체의 법에 상충될 때 임기보다 정년이 우선한다. 임기가 남아있어도 정

지로 결의 돼 있다. 고제동 목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나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관 목사(증경총회장)는 "재단이사회 회원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운영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을 하기 어렵다. 운영이사는 재단이사 전원 파송이사과 총동창회 회장이 구성요건"이라며 "재단이사회 회원권 문제가 해결 없이

창립 4주년 100주년기념교회, 영광과 상처 한 몸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보육관리를 위해 설립된 100주년 기념교회(담임 목사 이재철)가 지난 12일 창립 4주년을 맞았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후 성도 수가 5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성장·부흥했고, 양화진 보육은 지난 2006년 무료안내 실시 이래 11만 6천 7백 여명이 참배할 만큼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성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양화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100주년기념교회는 자외선 타이트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00주년기념교회 독립성 지키기 위해 교단 탈퇴했다"

이재철 목사는 창립기념주일이 지난 12일,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립성을 갖고 양화진을 지키기 위해 45년간 몸담았던 예정통합 교단을 탈퇴했음을 성도들에게 알렸다.

이 목사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에 의해 초교파적 독립교회로 태동된 우리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될 수 없는 동시에, 모든 교단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특정 교단에 치우침 없이 한국교회 공동유산인 양화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양화진묘역 청소를 실시해 양화진을 가꾸고 있다. 뉴스미션

하지만 이재철 목사는 독립교회인 100주년 기념교회의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소속 교단 헌법과 일치하지 않아 교단에서 기소된 상황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였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제가 독립 교회인 우리 교회를 목회함으로 인해 제가 속한 교단을 더 이상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음으로 100주년기념교회에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고 밝혔다.

이어 그는 "45년간이나 몸담았던 교단을 떠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또 이어서 "하지만 그것만이 제가 사랑하는 교단,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 모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라고 말했다.

외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100주년 기념교회는 지난 2007년 예배 장소 문제로 외국인 교회인 유니온교회와 갈등을 빚어 최근까지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왔다.

또 최근에는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장로권 사호청제 및 교회 안 주자를 문제 삼는 성명서를 냈다. 장로권 사호청제는 이재철 목사 소

태평양개혁장로교회총회

퍼시픽개혁신학·신학연구원 개교1주년 감사예배



태평양개혁장로교회총회 한국서울노회 직영 퍼시픽개혁신학·신학연구원(학장 이형춘 목사)은 지난 7월 21(화)오후2시 서울역 회의실 별관에서 개교 1주년 감사를 드렸다.

이날 학장 이형춘 목사 사모로 예배가 시작되어 양성민 목사(일산분교장) 기도와 오기열, 김임순 목사, 브리스치유찬양선교단 등이 특별찬양을, 강이레 목사(전도학 교수)가 성경봉독을, 지용은 목사(기독교상담학교수)가 "기본적인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권종근 목사(마포분교장)의 봉헌기도를, 정요셉 목사(구약개론교수)의 권면과 조경애 목사(은누리선교회)의 축사에 이어 노회장 백승길 목사 축도로 개교1주년 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좌두행 목사(미션문화재단총재) 진행으로 자원봉사상 수여식과 교수회의가 진행되었으며, 3부 김호일 목사(생명나무교회), 김성민 교수(기독교교육) 등이 특별강의에 나섰다.

디어스 & 퍼시픽 개혁 신학연구원은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 개혁 장로회 직영 신학교이며, 한국서울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총회의 미국 교단 인준 신학교는 하와이에 소재를 둔 Berkeley Christian University & Seminary이며, 본 신학교(서울 용산 서계동 45-8)와는 총회 인준관계를 맺고, 유자격자에 한하여 학점 인정과 공동 학위를 수여 하고 있다.

속 교단인 예정통합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현재 이재철 목사는 서울서노회에 기소된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4주년을 맞은 이재철 목사는 양화진을 관리와 보존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주변의 비방과 모함 속에서도 양화진을 겸손히 지키기 위해 허리띠를 동여둘 것을 당부했다.

이 목사는 "양화진을 한국교회 공동유산으로 지키기 위해 많은 교우님들의 육체적, 물질적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면서 "우리교회의 출현을 불편해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모함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양화진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으로 관리하고 보

존하는 것은 우리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하신 기간까지 겸손하게 지키자"고 요청했다.

이날 오는 16일 서울서노회 기소위원회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알린 이 목사는 "비록 교단은 탈퇴했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이상 역사의 기록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라며 "만약 교단이 징계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주년기념교회는 외부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7월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693명이 창립예배를 드린지 4년 만에 주일예배 출석 성도가 400명을 육박할 정도로 부흥하고 있다. (뉴스미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감동이 시작되는 믿음의 기업"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께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

막상 닥치고 보면, 당황스럽고 절차와 금전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에게 의논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상조이행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삼성해상배상책임보험 가입

◆ 24시간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회원은 빈소, 접객실이용료,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행사를 저희가 책임집니다.



불우이웃 무료장례 선교위원
장례위원장 정 기 남

무의탁 노인의 장례를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수도권 각 교회 멘토링 세미나 후원
- 2007년 전국교회 전도세미나 및 전도철체어 1,000대 무료증정
- 2008년 전국교회에 웃음치료 세미나 후원
- 2009년 전도간증왕 초청 무료 간증 후원

※ 강사료는 저희 회사에서 일체 부담해 드리니 교회에서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032)329-3755~8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www.kdsangjo.co.kr 24시간 콜센터:1577-4415

지저스타임즈 장례위원장 정기남 011-468-6574



20000원 X 120회면 걱정 끝!!!

대학연합교회창립7주년기념임직예배

목사안수식과 Holy Spirit Day Movement 비전선포식 가져



HSD 대학연합교회(담임 김형민 목사)는 창립 7주년을 기념 감사예배와 행사를 2009.7.19일(주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문화관 2층에서 많은 관계자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에 오관석 목사(월드비전교회 원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2부에 김형민 목사(HSD 운동대표)는 Holy Spirit Day Movement 비전선포식을 선포했다. 이어 강영무 교수(동아대), 이갑현 교수(우석대)가 HSD 교수연합회 출범식을, 윤기영 집사(신풍유통 대표), 김민우 집사(한성기술개발 대표)가 HSD실업인연합회 출범

식을, 박형근 집사(국립암센터 의사), 이상수 집사(군의원)등이 HSD의료인연합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김근수 목사 사회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수선교사 안수식이 거행되어 라성식(건국대 기계공학과 졸업, 침신대 신학대학원 졸업(M.Div)), 백승건(건국대기계공학과 졸업, Golden Gate Baptist Theology seminary)등이 목사로, 권오규, 김운호, 이갑현 등이 장로로, 김 현, Am Sophic 정완용, 정진욱 등이 안수집사로, 김용이, 박혜숙(탈렌트), 김현성, 오정수, 신옥선, 서옥심, 이경숙, 정태숙님 등이 권사로, 손원성, 이혜정, 정

진옥 교수, 등이 교수 선교사로 각각 임직식을 가졌으며, 월드비전교회 오관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HSD 대학연합교회 담임 김형민 목사는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Holy Spirit Day 를 창간호를 발간, Holy Spirit Day Movement의 꿈이 이루어는 일에 HSD Press가 크게 일조할 것을 믿는다면, 이 시대 청년, 청소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예수님의 입이 되어 줄 것과, 이 세상의 크고 미혹된 소리가 아니라 엘리아가 들었던 세미하나 진리의 음성을 대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세계적인 가수 ABBA의 'I have a dream'이란 노래를 창간호의 축사로 대신했다.

“만약 꼭 해야할 일이 있다면 실패



한다고 해도 해보는 거야! 내가 꿈꾸어 왔던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면 항상 내 곁에서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거죠. 믿는다면 이뤄지죠. 늘 꿈꾸어온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편집부 성순희기자



이정익 CBS신임이사장 “새롭게 태어날 CBS 지켜봐 달라”



▲ 17일 오전 CBS 공개홀에서 진행된 재단이사장 이취임 예배에서 이정익 신임이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전환기 맞은 CBS,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

CBS는 17일 오전 목동 사옥 공개홀에서 교계 지도자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재단이사장 이·취

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는 만큼, 나 또한 뒤에서 힘껏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CBS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임사를 전한 김순권 목사는 “지금 한국 방송계가 때 아닌 어려움을 맞고 있으나, 한국교회가 뒤에 있어 든든하다”면서 “물려난 후에도 기도도 열심히 후원하겠으니, 정직하고 바른 언론으로 선교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계지도자 및 각계 인사들 “기독교 방송의 사명 다하라”

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CBS의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격려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삼환 목사(NCKK 대표회장)는 “CBS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정치가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콘텐츠로 이 민족을 치유하는 영적 병원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길 바란다”고



▲ 이정익 신임이사장원쪽이 김순권 전임 이사장에게 경포패를 증정하고 있다

전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는 염신형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와 함께 고홍길 위원장(국회 문방위)이 축사를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 위원장은 “축하드리기 위해 나온 자리지만, 마음 한 편이 무겁다”면서 “이러한 패일수록 CBS가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본분을 다해 종교방송의 위상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 제휴 뉴스미션 제공

《이정익의》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위기입니다.

권장회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기윤실 이사

요즘 사교육이 화두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교육이 아니라 사교육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사교육에 휘둘리는 아이들의 고통의 현실 대신에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주머니가 더 걱정거리이다.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사교육 대책 역시 가계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이다.

기윤실 제공

대통령은 사교육이 없는 학교라고 발표된 중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꿈꾸던 교육현장이란면서 금년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40곳 선정하여 (부모가 지출해야할 사교육비) 600억 원을 세금으로 대신 지원하겠다고 한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원과 경쟁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경쟁 위주 교육정책의 근간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가계에서 사교육비만을 줄여보겠다는 발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녀, 경건한 후손, 경건한 다음 세대를 얻기를 기대하신다.(말2:15)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접근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구하셨던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으나 찾으시는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은 서울대학교 가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것에 대한 관심 이전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주님에게 경건한 자녀를 내어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2007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의 97.2%, 고등학생 중 95.6%가 일상 언어 중에 욕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들도 96.6%가 평소에도 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중에서도 욕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단 3.4%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결과이다. 주님은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해도 마음에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아이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친구들에게 욕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안에는 이미 살인하는자인 사탄의 악령이 깃들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상적으로 욕을 내뱉고 있는 아이들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욕을 사용하지 않는 3.4%에 포함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얼마 전 KBS스페셜에서는 청소년들의 욕문화를 다루면서 그 원인을 PC방에서 찾았다. PC방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흥과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면서 실제없이 욕을 내뱉고 있었다. PC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실에 30%만 있어도 그들이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으면 한달이 지나면 모든 학생들이 욕을 하게 된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3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이용실태를 조사했는데, 아이들이 접속하는 상위 30개의 게임 중에서 70%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일인칭 시점에서 총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박살내는 <서든어택>이란 게임도 34.2%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총이나 칼을 이용해서 로그인한 사람을 죽이는 게임만 우리나라에 40여 종이 서비스되는 형편이다.

'악한 동무가 선한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처음에는 건전한 게임으로 시작하지만,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조금씩 폭력적인 게임으로 옮겨가게 된다. 사람을 죽이면서 즐기는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생들도 절반이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아이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살인을 즐기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율령 관심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에 집착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녀로 자라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권위 아래 하나님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배워 가야할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등을 돌린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살상을 하면서 사탄의 영을 채우고 있다. 공교육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초석을 놓으셨던 고 김인수장로님께서 부모교육을 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이 '텔레비전을 거실에 두는 것은 광야를 거실로 끌어 오는 것이다'였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임에 아이들을 접속시키는 것은 정글을 집안으로 끌어 오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행동지침 1번으로 "자녀를 주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적 관심이 사교육비나 공교육 문제에 쏠려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경건한 자녀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라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가 악한 동무인 텔레비전과 인터넷 게임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해야 할 것이다.(말 4:5-6)

기윤실 제공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복수

•부목사: 김장성

•전도사: 정원식

•원로장로: 류영근, 강천기

•은퇴장로: 나세영

•이래은퇴장로: 이두길, 정성협

•장로: 유의식, 김준웅, 김성경, 이윤곤, 전응규, 김민웅, 정건모

•지휘: 임재양, 최해숙, 강정임, 강선희, 유창근

•피아노: 강정임, 임사라, 윤혜림, 전보람, 김현경, 이준훈

생활목표: 날마다 성경읽고 항상 믿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심일조 생활로 축복받고 전도에 힘씀시다.

지역봉사: 행복노인대학(수요일)/무료급식(수.금요일) 이.미용 무료봉사/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한나누기 / 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후원계좌: 예금주:조치원장로교회

농협: 455041-55-000317

예배	시간	교회학교	시간
대예배	1부	주일오전 9:00	유치부
	2부	주일오전 11:00	유년주교
	주일오후	주일오후 2:00	학생회
수요일저녁	수요일오후 7:30	청년·대학부	토요일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 5:00		
심야기도회	금요일오후 10:00		

TEL : 041) 865-1301

교역자실 : 041)865-1302

FAX : 041) 864-8255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6-1

국제디지털대학교 2학기 학생 모집

추천인 조정환 목사 (국제디지털대학교 교수)

- 조정환 교수 추천시 졸업시까지 30% 장학금 지급
- 3년 조기졸업 가능. 국가유공자 전액 장학금
- 100% 인터넷 수업. 각종 장학혜택 있음
- 사회복지,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www.gduhebron.com www.gdu.ac.kr

■ 학점은행 2학기 수강생 모집(정원 충원시까지)

- 1년(대졸), 2년(고졸) 과정 진행
- 저렴함 학비, 수강과목 컨설팅 무료
- 나이 들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음
- 자격증 받을때까지 최상의 서비스

- 목회자, 교역자 우선
- 국가유공자 전액 장학금 지급
- 단체등록은 상담요망
- 준비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국제사이버 평생교육원

http://ica91.co.kr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 031-226-9001, 070-7569-9125, 017-211-9125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 사무엘상 15:10-22 찬양: 찬송가 493장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나으니라” 사울왕은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과 염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인에서 유명인으로

성경: 사무엘상 16:6-13 찬양: 찬송가 411장

오늘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무명인이었습니다. 볼 것 없는 사람, 아버지가 보아도 능력 없는 사람 바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명의 사람 다윗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인에서 유명인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세상이 볼 때는 능력 없어 보이고 보잘 것 없는 가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가정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무명에서 유명으로 만들어 가실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선포

성경: 사무엘상 17:45-49 찬양: 찬송가 384장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때에 다윗이 등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윗의 손을 떠난 돌맹이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고 거인은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장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포기 와 체념의 소리가 울려 퍼질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만군의 여호와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만이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일

성경: 사무엘상 25:23-35 찬양: 찬송가 519장

오늘 본문을 보면 화가 난 다윗은 4백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출발하고 이 사실을 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음식과 선물들을 준비해 급히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복수의 피를 멈추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은 죽었을 것이고 다윗은 복수의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처럼 피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막힌 일이 무너지고 나로 인하여 흐름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나로 인하여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 사무엘하 6:3-7 찬양: 찬송가 431장

아테네 올림피아에서 파린보이 박대한 전수는 부정 출발하여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실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최고의 방법인 가장 좋은 소가 끄는 세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삶

성경: 열왕기상 3:5-13 찬양: 찬송가 486장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물으셨을 때 그는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

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기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소원과 그리고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 등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물질일까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 등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

성경: 열왕기상 5:1-5:8 찬양: 찬송가 305장

다윗은 두로 왕 히람과 이미 신뢰를 쌓아 놓은 사이였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히람과 솔로몬을 엮어 주시고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과 운명은 없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의 만남도, 교회 지체들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히람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만남의 축복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직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에 기회이다.

성경: 열왕기상 8:17-21 찬양: 찬송가 361장

다윗은 하나님의 상징인 베훈에 휘장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백향목 곁에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시간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헌신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됩시다.

피난처

성경: 열왕기상 8:36-40 찬양: 찬송가 410장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그리고 범죄하고 회개할 때도 필요를 간구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반석 되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백성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 열왕기상 10:21-25 찬양: 찬송가 408장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성까지 주셨고 결국 솔로몬의 명성은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족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족을 높이시고 큰 은제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지혜와 부 그리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지혜와 명성 그리고 부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방법

성경: 열왕기상 12:25-30 찬양: 찬송가 342장

미국에는 실패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물건들을 통해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고 반대로 승리하는 방법도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실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보다 다른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정이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며 손가락질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방법

성경: 열왕기상 15:11-15 찬양: 찬송가 388장

오늘날 수많은 간증자 들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사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우리들에게도 실패와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행실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다시오실 때 까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선택

성경: 열왕기상 16:21-26 찬양: 찬송가 359장

오므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왕입니다. 그 결과 오므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받고 그의 가문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생각해 봅시다. 우상의 길로 갈 것 인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것 인지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과거보다 현재

성경: 열왕기상 19:1-8 찬양: 찬송가 484장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마찬가지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만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지나간 과거의 업적이나 영광으로 인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면 지나간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그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D-0783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사 및 논설위원과 해외지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예장웨신총회 부총회장)
상임고문 :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부이사장 : 정바울 목사(방주축복교회) | 창창문 목사(열린찬양교회)
사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부사장 : 천병우 목사(임마누엘선교교회) | 민종환 목사(세계선교중앙교회)
본사편집부장 : 김규리(나래이미지 대표)
전국지사
대전지사 이사장 : 박광우 목사(대전경찰청 경목위원회 상임총무)
대전 충청지사장 : 라영수 목사(지사장) | 전향희 사모(부장)
전남 목포지사 이사장 : 조광표 목사(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학장)
경북 대구지사 이사장 : 이상락 목사
전북 전주지사 이사장 : 박주성 목사(선일장로교회)
해외지사
우간다지사장 : 김기일 선교사 | 호주지사장 : 이종수 선교사
미국 워싱턴지사장 : 정형선 목사 | 일본지사장 : 전동홍 목사(동경신학교 학장)
태국 청야마이지사장 : 전송주 선교사 | 인도지사장 : 문흥기 선교사
본부 입문국 부장 : 정태종 목사
본사 이사회 사무국 : 전향희 부장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경찰공제회) 1층
본지인터넷신문방송 www.JTNTV.kr (E-mail: webmaster@JTNTV.kr)
전화(070)8230-0032, 0034, 02)741-0031, 02)407-6574, 팩스(02)763-0221
대표 : 011)468-6574

피종진 목사 8월 국내·외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2(주)~3(월) 서울 새순교회 (마평택 목사) 청소년 수련원 ☎(02)488-3161

3(월)~6(목) 평화의 동산 (원장 피종진 목사) 여름산상대성회 ☎(041)852-2211

7(금)~8(토) 군산 호렙산기도원 (원장 김사라 목사) ☎(063)451-3528

10(월)~13(목)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13(목) 오후 서울 소망기도원 (원장 연인애 목사) ☎(02)3663-7777

17(월)~10(목) 안양 명성수양관 (백민기 목사) ☎(031)673-8416

21(금)~22(토) 진주기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 ☎011-228-0631

24(월)~26(수) 새인천순복음교회 (김선강 목사) ☎(032)446-3700

27(목)~30(주) 서울 송파림문교회 (김향숙 목사) ☎010-3939-6089

31(월)~9(3(목) 익산 응답기도원 (원장 고정미 목사) ☎(063)853-7991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담임목사 : 김농주

오산반석교회는

행복한 인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인생 디자인센터입니다.

1.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 인생을 클리닉하는 교회입니다.

4. 신앙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중새벽예배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수요예배	오후 7:30	WIVA영재교육
일과파장	오후 6(주일)	중·고등부
디사이플스	오후 7:30(회)	청년부
		오전 05:30
		저녁 8:30
		오전 9:20
		오후 1:00(토)
		오후 9:30(주일)
		오후 7:30(토)

찾아오시는 길

최근 소망이

오산반석교회

우계순영

방학여공방

대형 이마트인 생생이마트

이마트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



담임목사 장승현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복음을 전파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절제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복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Tel, 041)356-0644 / Fax,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 011-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www.nasca.or.kr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우울증,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

첫째로, 육신적인 요소들이 있다. 질병, 해산, 수술과 회복 과정, 호르몬 혹은 화학적 불균형, 유기적 부전, 수면 부족,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피로, 월경 불순, 또는 육신적 질병 (즉, 저혈당, 당뇨병, 신(腎) 부전) 등과 같은 육신적이고 신체적인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우울해 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요소들이 마음에 영향을 줌으로써 마음이 불안한 느끼고 움직이는 경우이다. 그러나 신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이 서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신앙으로 분명히 자신의 연합함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써 그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 하고 낙담해 하고 비관 혹은 극히 염려 함으로 영양의 결핍 등을 가져와 몸이

더 나빠지고 심치어는 환각이나 환청 등을 경험하면서 더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일반의에게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학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 욕구나 의학적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생활을 분명하게 실천해야 한다.

둘째로, 삶의 상황에 대해 비성경적 반응을 보이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우울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육신적 장애 (즉 마비, 수족 상실, 시력 상실, 청각 상실), 실직,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대인관계의 상실, 재정적 어려움, 사고, 대인관계의 갈등, 자녀가 성숙한 후 집을 떠나 는 것, 은퇴, 압박, 예견하는 위기, 상

처, 혹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의학적 치료 등등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면 우울이라는 죄로부터 이겨 나갈 수 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수 있다. 음식 장애, 업무 과중, 불충분한 휴식, 부적절한 수면 습관, 물질남용 (마약, 음주, 처방약물), 운동 부족, 책임 완수 실패 (숙제, 정원

관리, 직장에서의 임무 수행, 자녀 돌보기), 예배 부족, 불성실한 기도 생활, 남을 용서하지 않거나 대인관계를 바로 잡지 않는 것,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 실패, 성실하게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를 범하는 것들이다.

넷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의 죄성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만들어진 비성경적 생각과 그패턴들 즉, 존 마음, 염려, 불안, 시기, 질투, 자기연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인내하지 못하는 것, 미루는 것, 호색적 생각들, 원망하는 것, 교만한 생각들, 분, 자신을 남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속에서 우울함 등을 경험하게 만든다.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합리화하여 죄를 짓는 습관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패턴들과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패턴을 입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는 신체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 혹은 삶에서 만들어진 문제들로 인한 것들이라면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드리지 못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자존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철저한 회개의 삶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서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들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우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순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문제들이다.

영적인 문제들은 세상의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해결 할 수는 없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엡 2:8) 받아 누리는 은혜속에서 우리는 우울증 혹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장애(?) 등등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현대의학에 말하는 정신병적인 증상들이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회복되었던 많은 사례들과 사건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어떤 환경적, 유전적, 사회



본지 상임운영이사 김주원 박사

적, 심리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신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며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해결의 방법도 제시하시고 계신다.

(다음호에 계속)

예수님의 상담원리 ⑧ 상담과 정체성

징체김 혼미로 방황하는 대입 재수생

백석문화대학 조경일 교수
(본지 논설위원)

학과를 지금 결정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 여자 친구가 지금 저에 대해 토라져 있어서 빨리 달래 주어야 해요. 저녁에는 술 약속이 있는데 안 가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밤에 PC방에 틀어박혀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일 학원 결석할 것 같은데 누가 대리출석 좀 해줄 수 있나? 꼭 지금 전공학과를 결정해야 한다면, 우리 반에서 내가 컴퓨터는 짤아나까 컴퓨터 학과에나 지원할까요?

이 학생은 마르시아(James Marcial)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유형 중 '정체감 혼미'에 속한 경우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

의 학생은 가끔 볼 수 있다. "제 성격에 맞게 아무래도 보내 주세요. 꼭 합격이 돼야 합니다."고 말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에릭슨(Erik Erikson)은 사회적 인격발달을 8가지의 단계로 구분하면서 그 중 5단계가 청소년기라 하고 이 때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라 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며, 방황과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자신의 직업, 가치관, 인생관을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사실 세상에 귀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돈을 버는 일, 직업을 가지는 일, 지식과 학문을 체득하여 좋은 명성과 지위를 차지하는 일이 다 귀하다. 그러나 평생을 두고 귀중한 일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태도의 향상을 위해, 상담자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열린 자세와 수용, 청소년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에 대한 탐색과 발견 등을 상담하여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① 자기 내면의 비난하는 습관을 파악, 인식하는 것 ② 자신의 장점을 찾는 것 ③ 자기를 수용하는 것 ④ 자기 비평이나 비난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다.

성경 마태복음(18:1-7참조)에 예수님의 어린 아이 교훈이 있다. 이 어린 아이 교훈은 어

린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고 어린이를 통한 교훈의 이야기다. 즉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며, 공동체에서는 어린이아조차도 실족시키지 말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이이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4절)고 한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자일수록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하며 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발견이다. 왜냐하면 건전한 자아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일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자기 존재의 확인과 재정립을 위한 사색과 노력으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탐색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때 정체감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개방성과 총체성 그리고 계속성을 가지게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달되도록 해야 하며, 여기서 건전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바탕을 가지게 해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대결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태복음 6:34)

산다는 것은 곧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 흐트러트려져 살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기회가 적으나 꿈이 있고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의 기회도 많다.

"조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는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선물로 주셨다.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지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하거나 또는 우상화하는 양 극단을 달리고 있다. 특히 크리스천의 경우 자신의 당연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맹목적인 기도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닌 기도 그 자체를 신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을 애써거나 피하게 해 달라" "그만 기도하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말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선물인 지성을 성령 안에서 잘 개발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스트레스와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피하면 피할수

록 내면적 고통의 강도가 커진다. "자기합리화"나 "변명"은 진실을 애곡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길만이 극복의 지름길이다.

우선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목표는 좋은 스트레스에 속하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나쁜 스트레스에 속한다. 나쁜 스트레스는 가능한 신속하게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나쁜 스트레스는 대개 이기심이나 탐욕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욕심은 목표 달성도 어렵거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일의 묘미를 알게 되어 재미도 있고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다.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을 몰아 붙인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다. 일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 꾸준히 하게 하는 것이 일의 성취도 견고하거나와 심신의 건강에도 좋다. 몰아 붙이는 사람(행 성격)은 합리적인 사람(행 성격)에 비해 심장병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최근 예방의학의 결론이다.

스트레스와 정면대결을 하다보면 역부족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수면이나 적절한 휴식, 좋아하는 운동, 음악감상, 목욕등이 스트

레스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특히 목욕요법 중 온탕요법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속시간도 매우 길다. 그리고 이웃에게 문제를 숨기지 말고 같이 의논,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축적된 지혜를 빌리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계획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내일 일에 날 일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잠21:31)은 염려를 줄이는 현명한 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듯 인간의 걱정거리는 허황된 것이 많다. 이러한 염려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을 피하고 게을리 할수록 증폭되고 커지는 법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라는 고통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 그날의 책임에 따르는 괴로움과 고통은 그날로 마감되어야 한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로 처리되어야 한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자세(잠16:3)가 질실한 시대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바르게 활용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아쉽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스트레스와 정면 대결을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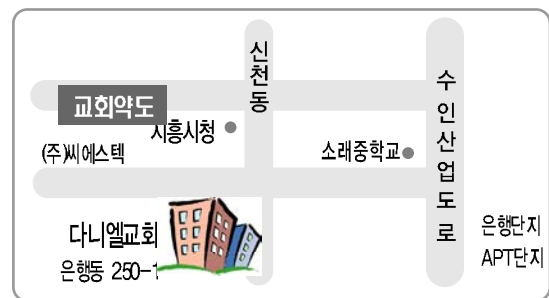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용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담임 고성규 목사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 원로목사 : 이 철 재 감독 (Bishop)
 - 담임목사 : 이 정 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절)

생명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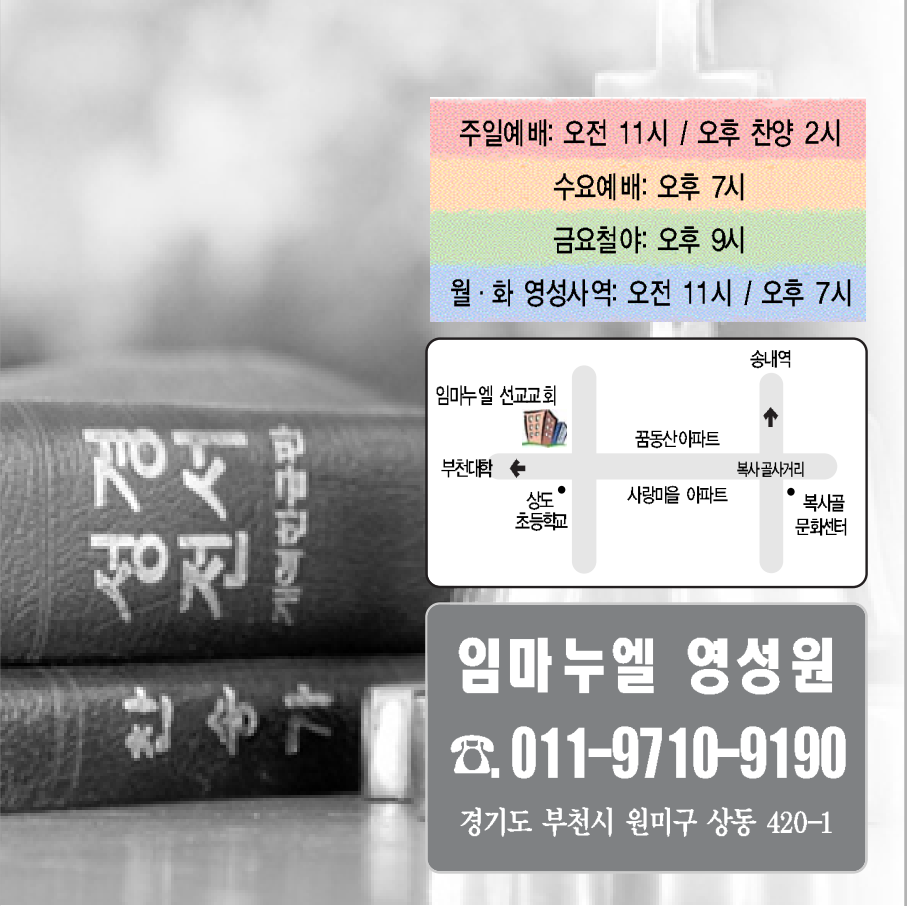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1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1]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1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자"



▲ 2009 CCC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대집회장에 은혜를 사모하는 참석자들이 가득하다.
뉴스파워 송초록

CCC 여름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쳐 ... 도시전도와 순례전도 떠나

푸른 초장 위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여름축제 CCC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4박 5일 동안 진행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시작된 수련회였지만 평창의 하늘은 구름기둥이 지켜주는 것처럼 최적의 환경이 되었고 간혹 보슬보슬 내리는 비는 불같은 청년들에게 휘발유를 떨어붓는 것과 같았다. 수련회의 꽃 저녁집회는 참석자들이 들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고, 비주일을 강조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땅을 구르며 주님을 향해 손을 버리고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첫날 집회 메시지에서 박성민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새롭게 영접하기를 원하거나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무대 위에 초대했다. 발 디딜 틈 없이 무대에 올라온 이들과 전체 참석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튿날에는 죄 문제의 해결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구약시대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고 이것을 걸어 불에 사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헌신예배의 밤에 박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만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갈릴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주실 때 장애물에 도전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자."면서 "수련회의 주제 'Yes! We Can'처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도전했다.

또 박 목사는 잘못된 CCC와 올바른 CCC에 대한 약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잘못된 CCC는 과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Cling to the past', 열등의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Cowardice', 다른 이들이 나를 때루기로 볼 것이 생각하는 'Complex', 올바른 CCC는 믿음으로 변화하는 'Change', 믿음으로 도전하는 'Challenge',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Be Creative'라고 설명했다.

집회마다 한빛맹 학교 빛소리중찬단의 감동스러운 무대, 강원 페스티벌 앙상블의 클래식 등 공연도 참석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됐다. 다양한 영상자료와 발빠른 수련회 뉴스가 제공돼 집회 집중력을 높이기도 했다.

두 번의 오전집회에서는 김윤희 박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강의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미션 플레너리(Mission Pleary)가 진행됐다. 올해도 가장 중점을 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새친구반이다. 약 7백명의 새친구들이 등록해 레크리에이션, 순례토의, 선포의 이야기, 영접기도 등을 접하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됐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간사들과 도우미 순장들의 마음이 빛나는 자리였다.

이번 수련회에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토고에서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토고CCC 학원국장, 캠퍼스 간사와 순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겨울 원주 지구 단기선교를 계기로 참석하게 된 이들은 단기선교팀이 돌아간 이후의 변화에 대해 간증했다. 단기팀이 로메 대학에서 1222명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15그룹의 순모임이 시작됐고, 카라 대학에서는 태권도공연으로 4000명을 전도하고 나서는 40명이 영접하고 66명이 순모임에 연결됐다고 전해

들이 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었다. 백일장, 찬양경연대회, 크리스천댄스대회, 요리대회, 스포츠, UCC 경연대회 등 학생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었다.

한은지 학생(광양보건대 2년)은 "오랫동안 힘들었던 문제들이 수련회 현장에서 받은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 계속 기도하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 한빛맹학교 빛소리중찬단(SBS 스타킹 3층, 상반기 원종양)

뉴스파워 송초록

주었다. 한국 단기팀 방문으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고 교회가 개척되기도 했으며 한국CCC 대학생들이 토고를 찾아 선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CCC 국가 대표 복 라우리로는 "한국에서 열린 CM2007에 77명이 참석해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었다. 이들 중 10%가 전일간사로 20%는 협동간사로 지원했다. 현재는 한국 인유학생사역을 통해 60명이 연결됐다. 2020년까지 1800여 대학에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위해 한국이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다.

CCC 여름수련회는 전통적으로 신입생들이 사영리를 전할 수 있는 교육 LTC를 한다. 이번 수련회도 고학년 순장들이 수련회 참석 전에 열심히 교육을 준비해 20여명 단위로 전도 훈련을 했다. 또한 순장들은 다양한 성서 강해를 통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

수련회 기간 중에는 선교관을 운영해 선교정보 제공, 선교사의 상담 등을 했고 미전도종족 사진전시회를 열어 미전도 지역 사역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매일 상담실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이들이 넘쳐나기도 했으며, 140여개의 선택특강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했다.

벧햇날 페스티벌에는 뽁뽁한 일정 속에서 집회와 은혜를 들어왔던 대학생

또 처음 참석한 정은경 학생은 (전주 교대 1년) "만 명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뻐하셨다고 생각했다. 너무 좋은 수련회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 이후에도 역시 대학생들은 순례전도를 전국 각처로 떠나게 된다.

특별히 올해에는 인천국제성시축전의 일환으로 인천 도시전도를 한다. 지난 6월에 CCC 간사들로부터 사영리 전도 훈련을 받은 3천 226명의 성도들과 함께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교회와 연합해 도시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해 복음의 관문 인천이 거룩한 도시가 될 것을 기도할 것이다.

광고문의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배너광고, 팝업광고, 일반지면광고)

광고문의

광고국 : (02)407-6574

FAX : (02)763-0221

포토샵 강의

어도비 포토샵의 기본편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궁극적인 '툴박스' -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궁극적인 '툴박스' - 얼굴의 여드름과 잔주름 지우기의 달인 '힐링 브러시'를
4. 포토샵의 궁극적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자도 쓴다 텍스트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 레이어
6. 어둡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옷을 같이 입히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 Size'
9. 회로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Hue/Saturation에서는 색조와 채도 및 밝기를 조절한다.

Image - Adjustment - Hue / Saturation 또는 단축키 Ctrl+U를 사용한다.



Hue 슬라이더는 주로 이미지에 새로운 컬러감을 표시할 때에 조절한다.

Hue 슬라이더를 좌우로 조절해 본다. 전체적인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제에서 붉은 색만 바꾸어 보도록 한다.

-대화상자 상단에 'Edit : Master'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붉은색만 바꾸면 되도록 Red를 선택한 후 Hue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움직여 본다.

붉은색을 가진 부분은 모두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지 뒤쪽 붉은색 벽돌 부분도 같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정밀한 부분은 조금더 고급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Sturation 슬라이더는 채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색상이 열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다.

이 슬라이더 역시 Hue처럼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색상만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

Colorize 옵션에 체크 표시를 하면, 색조는 0% 채도는 25% 붉은색 톤을 가지게 되며, Hue 및 Saturation 값을 조절할 수 있다.

너무 심하게 색조 및 채도를 조절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됨으로 주의하도록 한다.

꽃보다 꽃씨를 나누립니다



새에덴교회 당회장 소강석 목사 시집 꽃씨 출판기념사인회

알려진 옥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는 파도가 '네가짓게 뭐야'하고 바위와 물을 물어세우며 우르르 광 범버들지만, 소강석 목사의 그림움에서는 오히려 파도와 물의 절벽은 서로 천하의 사랑과 그림움로 어울린다. 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출판기념사인회를 가져 큰 성과를 이루었다. 소 목사의 목회칼럼에서 감동적인 대목은 "제 목회 초기부터 끊임없이 희망의 꽃씨, 꿈의 씨를 강단에서 뿌렸던 일이 가슴 뿌듯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가락동 시절 우리 교회는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꿈을 꿔왔습니다. 하루 한번 제때로 퍼지 못하고 힘들게 가난한 삶을 지탱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의 꽃씨를 심어줬습니다. 그 가운데 정한 이에게는 대법원장이 되는 꿈의 씨를 심어주었고 사랑과 정성을 다했습시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한이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를 거쳐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쉬

운 것은 정한이가 좀 더 됐으면 충분히 서울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팬발의 소명자"로 알려진 새에덴교회 당회장 소강석 목사는 3M(팬발, 팬뿔, 팬손)을 시작으로 2만 5천 명의 성도에 이르는 신도시 대형 교회를 일구어내어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소 목사는 주 5일 근무시대를 대비한 21세기 도시 목회의 새로운 모델인 1만여 명의 프리미엄스 콤플렉스 성전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1312번지 소재에 완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비전의 노래를 펼치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시골 출신 소년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쫓겨난 후 고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스토리는, 한편의 순정 만화처럼 흥미롭고 감동적이다. 그래서 소 목사의 설교와 저서들은 콘크리트 도시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가슴에 들꽃 같은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꽃보다 꽃씨를 나누립니다.

포토이카데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이 시대 가장 보편화된 카메라를 통하여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들여다보고 기록문화교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기록사진가들을 교육, 양성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토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강좌안내

- 사진기초반(총 12회) : 사진작품반 (총 12회) : 포토샵반(총 8회)

교육기간

- 사진기초반(매주 화요일) : 2009년 7월 7일~ 9월 22일 :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사진작품반(매주 월요일) : 2009년 7월 6일~ 9월 21일 : 오전 10시 ~ 12시
- 포토샵반 : 8주 과정(문의)

교육장소

- 대광교회 교육관 4층(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현대아파트, 관양초등학교 인근)

모집정원

- 각반 15명 정원

수강료

- 12만원(12주)

수강문의

- 강지문의 : 아카데미 원장 주승철(010-8008-5532)
- 장소문의 : 대광교회(http://www.daekwang.or.kr / 031-384-7408)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참이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장소	매일 10시 15분은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대광교회 담임 염영수 목사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화 02)2293-0045

H · 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010-7405-9191

곤두박질, 주일학교 대책방안 세워야 <1>

한국교회 적색신호...주일학교 감소 무엇이 문제인가?

▲ 주일학교는 교회성장의 생명이며 기초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현재의 교회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학생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상황이다. 여기에도 물질문명의 발달과 인식경쟁으로 인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한마디로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전략을 실천, 교회성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일학교 감소의 심각성을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편집자주>

교회마다 교육부서들이 초비상이다. 아동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부서들을 합쳐보아야 장년 출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통계들은 장년들에 비해 교회학교 아동들의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 국민의 아동인구가 감소로 돌아섰으니 당연한 통계라 할지 모르지만 아동인구의 감소율보다 교회학교의 출석 감소가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특히 사대의 심각성은 주일학교 인원 감소에 대한 교단별 위기감과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교회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존재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인원감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의 교회학교 교육의 틀로서 21세기를 담당할 큰 인물들을 교회가 키워낼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의 교회학교 구조와 형편으로는 다음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주일학생의 감소 요인으로는 달라진 어린이 놀이문화(게임, 컴퓨터, 인터넷 등), 학원의 증가, 담임목회자의 교회학교 마인드 부족, 책임자가 없는 구조적 결함 등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목회는 담임자의 목회철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담임목사에게 교회학교의 관심을 토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때문이다. 또 교회학교는 책임자가 없다. 부장이 책임지는가 교육전도사가 책임지는가? 아니다. 물론 책임의 한계는 담임목사 정도이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생명이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부 학생회 등은 교회성장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교회들이 이들에 대한 선교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회들은 당장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주일학교를 비롯한 중고등부 학생회의 재정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또 현재 경쟁사회의 일시제도가 주

일날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학원 등으로 내몰고 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회보다는 입시학원으로 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마저도 자녀들이 교회보다는 공부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좋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의 어린이가 계속 감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교인 통계에 따르면, 2007년도에 어린이 주일학교의 학생수는 18만9189명이었다. 다음해인 2008년도에는 19만321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5년 27만1922명, 2006년 24만9682명, 2007년 24만4014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이들 교단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의 어린이가 계속해서 줄었다. 이것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이다. 에장통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의 주일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도심의 교인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먼거리의 교회를 다닐 수 없어 휴면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초중교회를 비롯 중앙교회, 동대문교회, 연동교회 등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학교의 학생수가 수백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도심의 교인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몇십명에

불과하다. 또 젊은 교인들도 줄어 들고 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최악을 맞고 있다. 그래도 이들 교회는 다행이다. 주일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수준에 놓였다.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

시급 어린이 전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

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전략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원동교회 이재철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결손가정의 아이들과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키즈트보 신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태권도선교단과 음악선교단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동일교회(이수훈 목사)는 소그룹의 팀장을 중

심으로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있다. 때문에 마

를 전체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적을 낳았다. 이 교회의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이 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부다 교회교육 중요성 제기 성남 원동교회와 동일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회가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정

의 상당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 어른들의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신앙지도가 있었다. 특히 경쟁을 위한 입시의 준비보다도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



교회성장의 기초되는 주일학교·중고등부 학생회 재정지원 부족 생명력 상실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성남시 원동교회와 동일교회에 대한 위기감

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젊은 교인 만능기에 주력해야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젊은 교인을 만능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60·70년대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의 선교를 펼친 결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물질문명의 발달과 입시경쟁 등으로 인해 젊은 교인들이 교회를

빠져 나가면서 교회성장에 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일부교회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젊은교인들을 위한 선교전략을 수립,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교회학교성장연구소 소장 박연훈 목사(서울비전예수신학교 학장)는 “현재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성서지식을 전달하는 지성교육이라 문제의 지적은 사실 핵심을 찌르는 원인이다”며 “이보다 더욱 분명한 교회학교 감소를

물고 온 병원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교회학교의 본질인 예수생명의식 불능’이라는 병균이다. 영혼구원이 안 되고는 성경공부도 화려한 멀티미디어도 찬양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영혼구원이 잘 되지 않은 지벌서 수년... 그러나 저질로 교회학교의 인원이 감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 목사는 이제 치료해야 한다. 목회자와 교사가 하나 되어 ‘예수생명의식’에 앞장서야 한다. 10명이 모이면, 50명이 모이면 열 명이 모이면 주일학교에 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생명’이 인내해야 하고 중생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한다.

(큐프레스닷컴제공)

구원론 (3)



임미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본지 부사장)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저번 지면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원죄(아담으로 인해 유전된 죄)와 태어나 저지른 모든 우상숭배와 물욕, 음욕, 탐욕,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

원을 받았습시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죄와 허물을 안 지을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이후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어떤 은혜가 예비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구원론, 회개론, 안산훈화, 신전지, 여호와의증인 등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육신이 연약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서 지금도 성부하나님 앞에서 중보와 간구와 대언을 하여 주시고 계심으로 다 사하심을 받으십니다.(딤후2:5, 롬8:34, 히7:25)
딤후2:5에서 하나님과 죄인 된 사

람사이에 중보자이시며, 롬8:34, 히7:25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요일2:1-2에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하나님 아버지께) 신원 확정받은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를 흘리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저 아이의 죄를 내 피로 사 하소서, 내가 저 아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한 점 흠 없는 피를 흘렸나이다 대언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피는 주님이 십자가로 재림 하실 때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피 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죄를 짓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느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일1:5-10에 이르신 말씀같이 죄를 짓지 말되 만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 의가 또는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성부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자백 회개는 이미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구원 받을 때의 회개와는 다릅니다. 회개라기보다는 자백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여 받는 구원의 회개는 단 한번이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사함 받는 죄와 허물의 자백은 항상 있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 구원론, 회개론, 안산훈화, 신전지 등 이단에 빠지는 일은 거의 또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 구원받은 성도의 물 침례와 성령침례는 다음 지면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 **설 교 집** : 교정 교열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전문 교정 인력과 신학전문 감수위원이 있어 주일 설교원고만 주시면 설교집을 멋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 **교회신문** : 해당교회에 맞는 기획과 원고아이템을 제공
 •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과 이미지를 다량 확보
 • 교회홍보와 소식지, 성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필수아이템
 교회신문 지금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하는 곳! 나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Tel. 031)501-6713
 Fax. 031)501-6773
 H·P : 010-2872-0496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구분	시 간	구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 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 선 목사

기 관	시 간	장 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기관	시 간	장 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설장대 학	금요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목요 특별 문사 집회

강사 송미순 목사

지금 전화 한통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제일교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찾아 오시는 길

영광제일교회

461-1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점령을 상징한다.

3)성령님의 조용하면 서도 힘찬 영향력을 설명한다. 이처럼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봄 저녁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임하시기도 하신다(행 16:14). 에스겔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한다. "행기(wind)가 사방에서 와서 사방을 당한 자들에게 불매 마른뼈들이 살아나더라"(겔 37:9) 곧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힘이 솟아나는 신비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2.물(Water) 물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가장

3)시내(floods)

"다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사 44:3, 노아 시대에 홍수가 범람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계 21:6). 즉 성령님의 공급하심의 넘치도록 풍성함을 말한다.

4)비(rain)

"그는 비같이 임하시리라"(시 72:6). 비가 없으면 기근과 흉년과 황폐를 뜻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비처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사막을 변화시켜...장 마뿔을 만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십니다(사 35:1).

5)샘물(springs)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나의 모든 근원(springs)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시 87:7). 이런 상징들에 근거하여 볼 때 성령님은 끊임없이 공급자이시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영성의 창조자이시다.

6)이슬(dew)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호 14:5). 이것은 곧 비밀스럽고 눈에 띄지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전의 새벽이슬이시다.



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먼저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관심을 표명하심인데 사람들을 택하여 자기의 사자(使者)(고후 5:20)가 되게 하시며 그의 비밀한 뜻을 해석(解釋)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표(代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람들의 겸손(謙遜)을 위한 훌륭한 유익한 훈련(訓練)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흠에서 나온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집행하며 경고와 권면하는 일을 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직분)는 사도(使徒)에 해당한다"고 했다(가복고 강요 4권 3장 5)

그는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교회의 사역자들은 주께서 자기의 사자로서 파견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성령님의 상징 1(The Symbols of the Spirit)

막 1:9-11 말씀... 효신교회 박정엽 목사

너무나 관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징들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해 주신다.

1.바람(Wind)

바람은 볼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인간적 통제력으로 수정될 수 없고, 다만 그 결과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결국 성령님의 신비로운 중생 사역에 적합한 비유이다(전 11:5). 즉 성령님은 그의 활동들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1) 성령님의 신비로운 중생의 역사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요 3:8. 신비로운 거듭남을 상징한다. 2)성령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감동하심을 설명한다.

특히 누가는 오순절에 강령하신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다"고 묘사한다(행 2:2). 여기 "강한(Mighty)"이라는 표현은 성령님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상기시켜주며, "급한(Rushing)"이라는 말은 능률적으로 속 깊은 곳까지 접근하심을 함축한다. 마치 회오리바람(tornado)처럼 완전한

보편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다. 특히 성령님의 무한정하게넘치는 축복들을 상징한다.

1)물(water)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데, 성령님의 씻으심과 깨끗케하심과 재충전하심을 상징하는데 인간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만족스럽게 채워주심을 말한다(요 4:14). 또 정결케하심과(겔 36:25-27), 생령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47:1-12, 기쁨을(사 12:3) 상징한다.

2)강물(rivers)

"성령님은 곧 생수의 강이시다"(요 7:37-39). 여기서 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복수를 쓴다. 이것 은 곧 성령님의 다방면의 사역을 지칭한다. 즉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다양성"(diversity)이다.

3.불(Fire)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인다. 그러나 가장일반된 상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품을 뜻한다(대신 4:24 히 12:29). 성경에서는 여러번 성령님을 불로 설명하는데(사 44: 특별히 "불처럼 갈라지는 혀"로 설명된 대(행 2:3, 례 12:49, 계 4:5, 불은 따뜻함을 상징한다. 정결케함(성화)을 상징한다(바람이나 물이 정결케할 수 없는 것들까지) 빛을 비추임을 상징한다. 즉 성령님의 조명과 밝혀주심을 뜻한다(렘 1:17,18 히 6:4 뜨겁게 함을 상징한다. 성령님의 능력은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한다(롬 5:5) 능력을 상징한다. 특히 성령님의 활동적인 능력을 지칭한다(행 2:3,4 례 9:24, 10:2 말 3:2 고전 3:13,14.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A. 서론

설교(說敎)에 대한 인식(認識)은 그의 설교 사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설교자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도 설교자로서의 자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에 대한 인식은 그의 설교 사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목회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목회자요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살펴보면 설교에 대한 인식에 새롭고 깊은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말씀이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봄 저녁의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임하시기도 하신다(행 16:14). 에스겔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한다. "행기(wind)가 사방에서 와서 사방을 당한 자들에게 불매 마른뼈들이 살아나더라"(겔 37:9) 곧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힘이 솟아나는 신비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2.물(Water) 물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가장

당시나 오늘날이나 본질상 변화된 것은 없다. 우리가 칼빈의 설교를 살펴려는 것은 그 설교를 모방(模倣)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칼빈이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설교자로서 그는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아 오늘날 우리의 설교에 대한 자세에 도전과 성경적 칼빈주의적 설교로 돌아가고자 함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시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熱情)과 그 말씀의 사역자로서 헌신했던 한 시대의 개혁자들 통해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최근 칼빈의 설교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면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도 칼빈의 설교집이 속속 출판됨으로써 설교자로서의 칼빈의 면모(面貌)를 다시 대할수 있게 됨은 기쁨이 아닐 수 없다.

B. 본론

1. 칼빈의 설교자목회자직분에 대한 인식(認識) 1) 하나님을 대표(代表)하는 설교자 우리는 칼빈의 설교의 연구에 앞서 교회의 직분자인 목사에 대한 칼빈의 설교를 알아보고자 한다. 설교자에 대한 칼빈의 인식은 그의 설교에 대한 인

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의 권위(權威)에 있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권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권위를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고 전제(前提)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이 권위(權威)를 사람들의 봉사(奉事)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게 우리들 중에 계시는 것이 아니므로(마 26:11)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로 명백하게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으나 그것은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移讓)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연장(鍊匠)을 쓰는 것과 같다. 따라서 복음(福音)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음을 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일군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숨기신 것은 (고후 4:7)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명된 한 사람의 목사(牧師)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 일으로 공통된 교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교회를 한 끈으로 묶으셔서 연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2 사도(使徒)의 계승자(繼承者)인 설교자(說敎者)

그리고 칼빈은 "현대의 교사(敎師들(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간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직분 혹은 신학교수들은 고대의 선지자에 들지 못한 새로운 복음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목사이며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훈련과 성례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12사도와는 구별되는 직분(직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 서이라고 했다.

목사가 사도(使徒)와 같은 책임(責任)(각각 그에게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점을 제외하고)을 맡았다는 것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의 목자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기독교 강요 4권 3장 5).

그리고 칼빈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말이 오늘날의 목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단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전 9:16-17)(기독교 강요 4권 3장 5).

다음호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

웨 신 총 회

www.웨신총회.net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7월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10월	12-13	정기노회	
	5-8	일산금란교회(주성민목사)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18-20	생명의교회(백규식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0-22	은현기도원(조은원장)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5월	4-7	에스라산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8월	3-6	한얼산기도원(이영금원장)	11월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6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16-18	선교지방문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5-27	선교지방문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3월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9월	7-11	온누리복음화수양회(엄기호)	12월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축복대심방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21-24	교단총회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원장)		28-3	추석주간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토크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예복교회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

한기총, 아프리카 교정선교 후원 행사 가져

말라위 기독교 교도소 재소자 자활 프로그램 지원

각종 전염병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Malawi)의 교도소 재소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만찬행사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임신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한기총 목사)는 7월 28일(월) 저녁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프리카 선교후원 만찬 Love for Africa>를 개최했다. 김용진 선교사와 2006년도 미스코리아 박사란 양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행사는 예배와 아프리카 교정선교 보고회 및 訪韓 증인 미스말라위 조이스 페판다(Joyce Mphanda) 양과 아프리카문화원 예술단 아난카(Aaninka) 초청 공연으로 진행됐다.

강기원 목사(한기총 국제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안준배

목사(기독교문화예술원장)가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김경웅 장로(한기총 국제위 서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랑의 곡식 프로젝트와 선교사를 위하여', 전성원 장로(한기총 부회장)가 '한국과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가 '성공의 길목에 계신 하나님'(창 30:37-43)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운대 목사(한기총 총무)가 한기총을 소개한 후 아프리카 교정농장 사역에 대한 영상보고가 있었으며 미스말라위 조이스 페판다 양과 1988년도 미스코리아 김성령 양이 인사와 더불어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박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韓韓 아프리카 각국 외교사절들의 격려사와

박홍자 장로(한기총 여성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 날 행사는 아프리카 말라위 교정국과 함께 추진 중인 기독교 교정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개최됐다. 지구상의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말라위의 교도소의 재소자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차량 2대의 주차공간에 100여 명이 갇혀 지내며 한 끼 옥수수 죽으로 연명하고 있어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월 아프리카 교도소의 참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벨슨 만델라의 주장 하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랑의 곡식 프로그램은 광활한 농지에 한



국의 농업기술을 전수받은 재소자 노동력을 동원해 농사를 지어 수확물의 절반은 말라위 재소자들의 영양개선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고아·노약자·장애우·난민 등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시범시행국가 말라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로 확산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최빈국 전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MBC 보도, 20년 헌신한 분 악마로 둔갑

검찰이 예수재활원의 인권 유린, 공금 횡령 등에 대한 고소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 약식 기소하면서 이를 보도했던 전주MBC에 대한 전북 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 기장 전북농노

시 협상 내용을 밝히고 "하지만 전주

예수재활원 관련 보도에 대한 전북 교계 반발 확산



▲전북교계 "예수재활원 조작 방송한 전주MBC 사죄하라"

본지와 제휴 뉴스파워

회대책위,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등 전북 교계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송된 예수재활원(원장 송기순 목사)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조작된 방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 이광의 목사는 "20여 년간 부모도 사회도 돌보지 않고 버린 중증 장애인들을 데려다 젖을 먹여 키운 천사 같은 분이 송기순 원장님"이라며 "이런 분을 악마로 둔갑시킨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 이후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보도가 정당하다고 악랄하게 구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한국교회 복음 전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지방경찰청에서 방송된 내용과 제보자들의 의혹과 고발에 근거하여 6개월 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지만 횡령을 비롯한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학대 부분에서만 공색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들은 전주MBC 대표이사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2009년 6월 1일에 전주MBC 대표이사를 찾아가 시정과 사과방송을 정중히 요구했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당

가혹 행위가 인정된 다며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입

하여 성급하게 자신들의 엉성한 조사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고하므로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고 이권을 노린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도된 영상에 대해 "불법 침입자에 의해 촬영된 것임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평생시 보호조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여성장애우를 강제로 결박하고 이를 촬영했다. 촬영 당시 이 여성장애우가 생리중이었기 때문에 이 생리장면이 전국에 수차례 방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수재활원 주변에는 유해업체인 양조장, 시설폐기물업체 등이 들어서 있다. 불법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예수재활원이 도왔다."며 "이들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재활원을 음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촬영해 MBC 기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수재활원이 처음 시작했던 1991년부터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는 권영철 씨대



▲전주 예수재활원에서 10여 명의 원생들이 전주MBC의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서 울을 방문했다.

이 그대로 둔다면 자체 중증 장애인들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MBC는 지난해 12월 4일 "보육인가? 사육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모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로 알려져서 독지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줄을 이었던 한 재활원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한다."며 예수재활원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

전주MBC는 "전북도내 한 복지시설 원생들을 위한 침대는 모두 한 권으로 치워진 채 2층에 명이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부 원생들은 애안건을 묶을 때 쓰는 줄로 묶여 있다."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잠이 든 원생을 돌려 눕혀 보니 수갑을 찬 듯 앙손이 모두 결박돼 있다. 심지어 전장포로처럼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원생은 다른 원생과 줄이 꼬여 힘겨운 듯 연신 신음소리를 낸다."고 보도해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파워

사선을 넘어서 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12화] 김정일 생일맞아 탈북자 사면 갈 수 없는 고향... 또 중국으로



주순영 선교사는 체포된 복음, 그리고 사랑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경험한다. 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주 선교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였다. 2월 초 북한으로 끌려간 우리는 사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탈북자들에게도 관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노동당의 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생각하니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길이었다. 나는 이미 북한 공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다시 두만강을 통해 탈북하기로 동생들과 합의했다. "부

너시오." "안 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중국에서 운영하던 식당이랑 돈이랑 다 없어집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매수한 국경보위대 간부에게 죽어도 좋다는 다짐을 하고 나와 동생들은 두만강 얼음판 위에 올라섰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생사를 맡겼다. 그리고 누구든 얼음 속에 빠지더라도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약속했다. 얼음판을 건너는 내내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읊조렸다. 침묵 같은 밤에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늘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걸었다. "언니, 나 왔어요!"

중국 쪽 두만강 기슭이었다. 그 넓은 강폭을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지 꿈만 같았다. 우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잠시 호흡을 고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발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얼음이 녹아 위험하던 두만강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낚아채 들어 올려 얼음판을 건너게 해주신 것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세!" 우리는 두 손을 쳐들고 하늘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이제는 이 국경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순찰하는 군인들에게 잡히는 날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차 불빛만 보이면 땅에 납작 엎드리면서 마을로 진입했다. 새벽이 밝아지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녔다. 우리는 그들 속에 묻혀 태연하게 움직였다.

"애들아, 저기 십자가 보이지? 이 새벽에 우리가 갈 곳을 못 찾을까봐 하나님께서 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눈물범벅이 되어 뛰었다. 새벽기도가 처음 시작된 한 교회였다. 이처럼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초대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대상 앞 광바닥에 풀어앉아 실컷 울었다. 그리고 이제

부터 우리 모두의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잠이 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자는 단잠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닭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교회 사찰 아저씨가 차려주는 식사를 열차도 없이 걸신들린 양 먹여치웠다. 아저씨로부터 엔지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지도받았다. 문제는 세 개의 경비초소였다. 버스를 타면 초소마다 서서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게 유리했다. "예림아, 아직 몸에서 나오지 않은 돈이 얼마나 있지?" "아직도 여러 개나 안 나왔어요." "그래, 기도하자." 지금까지는 돈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이런 돈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택시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당장 돈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21)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과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

꿈내로 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효신교회

예 배 안 내

예 배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 당
오전동시예배	주 일	오전 11:00	제2성전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4:40	제2성전
주일오후예배	주 일	오후 5:30	본 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 당
금요철야 예배	금요일	오후 9:30	본 당
월요비전컴퍼런스	월요일	오후 8:30~10:30	제2성전
유치부	주 일	오후 1:00	유치부예배실
주일학교	주 일	오후 1:00	제2성전
중고등부	주 일	오후 2:00	본 당
청년부	토요일 주 일	오후 7:00 오전예배후	제2성전 본 당
리더교육	화요일	오후 7:00	세미나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6호선 4번 출구(KTF 앞) 03번 마을버스 탑승 공작 세탁소 앞 하차
버스 6628, 6630, 6716, 6714, 6623번 성석교회 하차(도보로 10-15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465-1 대표전화 : 02)2644-1621

대표전화 02)2644-1621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465-1
<http://hyoshin7.com> E-mail : park7300@hotmail.com

담임 박정엽 목사

나의 어머니는 작두무당, 혹독한 핍박에도 주의 길 가리라 결심

“은행을 그만두고 금식기도 21일 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 입학 결심”



강원도 원주시 명륜 2동 원주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창민 목사, 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신) 수도노회 소속. 정 목사는 건물을 매입 2-3층을 교회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 목사 내외의 뜨거운 기도와 목회관이 뚜렷하기에 성실함이 인근에 소문이 나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다.

정 목사는 눈물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었던 아픔이 많았기에 자신이 소령 받은 때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봄날 하교 길에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버스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낮 익은 목소리가 아닌 어떤 권위 넘치는 음성이었기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때 친구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들었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고 소령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작두 타는 무당으로서 종교적인 갈등과 마찰이 심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부엌칼을 들고 예수를 택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적인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오는 날이면 그 밤은 영락없이 무서운 공포와 오름이 저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밤에 자다 말고 어떤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서 내 가슴을 밟고 손으로 내 목을 조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부르며 그토록 심했던 고통은 사라지고 괴로움을 주면 형제들이 살시간에 사라지고 동시에 다시 평온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 2때부터 있었는데 고 2 때부터는 횡수가 더 많아졌으며 그 강도는 너무도 심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목사님으로부터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

야 되는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살 속에서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고 3때 가위눌림의 사건은 더욱 심하게 되었는데 가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시작부터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받은 방언을 나도 받자"고 다짐을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합시다" 할 때 제일 큰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끝에서 불같은 형상의 비둘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이 내 머리 위에 내려오면서 내 몸은 불덩어리가 되었고 계속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같은 비둘기가 내려온 후 내 혀는 꼬이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가족귀원의 기도응답을 받았고 나의 몸은 기뻐가 되어 날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불을 내려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불이 나에게로 임했구요. 가슴에서, 머리에서, 배에서...

부흥회가 끝나고 어느 수요일 예배 때 예배 후 의자에 앉아서 10분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서 제삿날이 되었는데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나가서 작은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계속 말씀하시길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사가 끝나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왔구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엄청난 욕설과 형의 폭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끌고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어머니는 강대상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목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포악한 행동과 언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엄청난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 때 너는 하나님께 항의 했습니다." 지금이 상황을 보시면서 신학을 하라 하십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온갖 욕설과 난동을 부리는데, 나더러 어찌라고요!!" 결국 경찰이 와서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가족의 포악성과 잔인성을 보고 너무나도 창피했고, 부흥회 때 받았던 축복들이 침체가 되면서 그냥 집에서 떠나고 싶었다.

그 후 집에서 잠을 자면 아파트 20층 크기의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런 가위눌림 속에서 살다가는 정신병자가 되겠다" 싶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가운데 산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이 산 기도의 신화를 읽고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때부터 집에 서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성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포기할까?" 하면 내 안에서는 더 강하게 산 기도를 원했습니다. 집에서는 잘 수 없고 산에 올라가면 "나는 귀신이다" "나는 마귀다. 사단이다" 등등 온갖 것들이 괴롭혔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면 산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괴롭히면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집에서도 못가지고, 기도원에서라도 잘 수가 없으니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모습이 계속 보였기 때문) 차라리 산에서 기도하리라 마음먹고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철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가 축복들과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을 너는 경험할 것이다." 하시면서 나에게 웃을 주셨는데 나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웃을 입은 후 20층 되어 보이던 어두운 자들이 갑자기 갑자기 모래 알갱이처럼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탈 욕신을 경험했습니다.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오대양 육대주를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양과 교회 크기 등을 보여 주셨으며 성경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영안이 열려서 송이 끝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과 축복들이 많이 있었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현 기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더 많은 부적이 집에 불었고 어머니는 산과 바다, 계곡을 다니면서 더 많이 무당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의 기도는 어머니에 비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사람 속에서 들어다 볼 수 있었으며,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역사하는 약한 영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이 은사는 나에게 주지시 말라고 기도를 했더니 즉시 사라졌습니다. 오랜 후에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결혼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은행에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목사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은행 퇴직 후 이제는 개혁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어느 기도원에서 2주 동안 성경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침체 되었던 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원과 영성 단체를 찾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2001년 원주에 개척 했을 때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와 쓰러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주변에서는 정신 나간 교회라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원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모처럼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산 기도를 통해 받았던 축복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홀로 목사님의 불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흠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각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2007년 겨울, 21일 장기금식을 위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장래

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각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현재 원주초대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구원받았고 놀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훈련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삶의 소망이 생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능력 봉까지 5분 만에 뛰어 올라가서

내려올 정도로 몸이 가벼워졌고 금식하는 내내 몸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홀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영계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옥을 뚫더니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이 없이 살아 달라 소리치며 회개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그 동안에 묵화한 하면서 이성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족속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옥에 오지 않도록 도구로 사용하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내내 회개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하늘에서 빛이 와서 내 정수리에 내려서 다른 회개의 내용이 기억나게 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고, 또 빛이 내려와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사모는 나와 같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나의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반자로 쓰시겠다고 하였고 아들 예담이와 딸 예나, 예정이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두무당인 어머니도 곧 구원받을 것이며, 형과 여동생도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묵화사역에 즉으면 죽으리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월 23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 시행령

2009년 7월 23일 강화된 저작권법 기존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이며, 저작권자가 고발시에 저작물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진 아웃 제도를 도입, 포털 사이트의 자체 감시 저작권 물에 세 건 이상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게재한다면, 최장 6개월 동안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또는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에 제재가 가해지며, 해당 게시물 게재된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자도 제재를 받아 운영상 큰 지장을 받게 됐다. 저작권법에 저촉이 됐을 경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클릭,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komca.or.kr/tanner/event.swf>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copyright/index.html>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든다면,

1.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것과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것은 저작권 위반.
2. 노래방 등에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도 저작권 위반.
3. 아들, 딸자식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
4. 가수 지망생이 연습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도 위반.
5.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가슴 아프다고 인터넷에 유행가 가사 게재해도 저작권 위반.
6. 김태희 씨의 사진 중 신체 일부만을 올려도 저작권 위반.
7. 위와 같은 사진을 다운받고 복사를 해도 저작권 위반.
8. 할인점, 카페, 놀이동산에서 가수의 음악을 틀

어도 저작권법 위반.

9.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처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
10.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을 올려도 저작권 위반
11.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 동의 없이 패러디해도 저작권 위반
12.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 파일이나 동영상도 저작권 위반
13. 맛 전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도 저작권 위반

위의 내용대로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사진이 못지않게 포함되어 있다하지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 아웃제를 믿지 말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말씀 마26:43-46절 **출** 15:22-26절 **치유는 하나님의 일!!**

협찬 : LG인테리어, 하사문화예술선교회 금산홍삼, 동원내추럴, 열방영성원, 아름다운 CTS기독교TV 계시판, 기독교타임스, 월드미션, 들소리, 지저스타임즈, 국민일보 국제여교역자봉사회, 샤론조경, 복지선교회, 영상 장석훈 안사, 사진 임원석 목사 김우용 장로, 솔람미패션, 하나복음, 한.예.찬.선교회

주최 : 기독교예언부흥사치유선교회협의회

장소 : 광주기도원 (031)761-2448 원장 정정국 목사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21번지

일시 : 2009년 8월 10일 ~ 14일까지

7월 22일 성경통달세미나

여전도회관 14층 1시~4시

강사: 현영철 목사

8월 4~6일 제부도 해변찬양제

국제연맹 기독교총연합회와

기.연.목.부.합 함께

8월 14일 오두산 통일전망대

광복절기념 기도찬양제

10월 12일 교도소 선교를 위한 콘서트

강사: 오범철 총재

장소: 기독교회관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강사: CTS 아트홀



채금에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희자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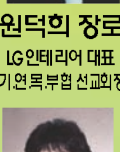
김성률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성수 목사
수석지문선교회



김동선 목사
실무위원장/글로벌미션



장영희 목사
LG인테리어 대표



강선도 목사
광주기도원 원목



복음가수 강신숙 목사
-송반 20년 결반-



강신숙 목사
기.연.목.부.합대표회장



오범철 목사 대표총재



최배율 목사
수석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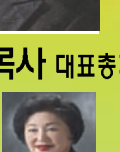
박영권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윤도보라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임무도 목사
기.연.목.부.합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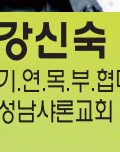
김사라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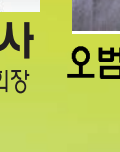
윤영규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유한나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박금순 목사
선교회



남보석 목사
선교회



정임분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정희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창기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배문자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윤병의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박예스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이순희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근우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정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최재창 장로
기.연.목.부.합총재



이찬미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창민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이민수 무용단
기.연.목.부.합총재



복지선교무용단
기.연.목.부.합총재



이순기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지민자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임재자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송미경 전도사
기.연.목.부.합총재



박영호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한경석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송영숙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장창배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김영국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이희숙 목사
기.연.목.부.합총재



장봉선 장로
기.연.목.부.합총재

대표회장 : 010-9049-4846 / 사무총장 : 010-5097-8899

영적재충전의 산실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 조성근 목사

선교 및 새터민(탈북자) 지원 사역에 힘쓰고 있다.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1999년부터 매년 성탄절을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담임 조성근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기도원으로서 날마다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역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약도)



안내실 / (031)472-7212 사무실 / (031)472-7213-5 팩스 / (031)472-7211

생명을 살리고 새 힘을 불어 넣는 영적충전의 산실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33)은 민족 복음화와 영적부흥에 힘쓰며, 세계선교에 헌신을 목적으로 큰 비전을 품고 1982년에 원장 임예재 목사로부터 시작된 갈멜산 금식기도원. 2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기도원이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속에 연인원 50만 명이 모이는 영적 부흥 운동의 산실인 중심지가 되었다.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교파를 초월하고 성경적 중심에 의한 개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신앙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갈멜산 금식기도원은 지리적으로 호조건인, 교통수단이 좋아 서울과 경기지역은 물론 대전, 충청권과 그 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공기 맑고 좋은 관악산 줄기에 자리 잡고 있기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충전을 위한 최적지이다. 여기 원장 임예재 목사를 협력하여 담임

조성근 목사는 성경중심적인 말씀과 개 교회 부흥과 목회에 영적 충전과 갈멜산 금식기도원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생활과 실망과 좌절로 낙심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새 힘을 불어넣어 영적생활에 재충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조성근 목사는 국내외의 선교 사역에서 해외 교회개척(인도 7교회 개척 및 지원)과 국내 교회개척, 미 자립교회 후원, 군 부대교회 지원, 구제사업, 병원선교, 북한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전국가족모임

기독교사진가협회 전국가족모임으로 협회발전에 결속을 다짐했다



▲열정넘치는 회원들의 모습

준 회원들과 사모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회장 엄영수 목사는 우리 기사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사진협회이기에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많은 회원들이 일할 수 있게 회원여러분의 많은 홍보활동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엄 목사는 협회의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고, 전국 가족모임에서 촬영한 사진콘테스트를 이벤트로 실시하며, 상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콘테스트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기사회는 행사를 통해 사진작가 엄영수



▲아름다운 선율이 모델의 손을 통해 들려오는 듯.....그날을 생각하게 한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는 안양 대광교회(엄영수 목사)에서 지난 4월20일 재건총회를 갖고 엄영수 목사를 만장일치 기사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회장 엄영수 목사 제1회 발기인 총회는 76일 약 2개월만인 7월 5일~6일, 1박 2일을 충남 대안 만리포 솔밭펜션에서 전국가족모임인 정모를 갖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가운데 하나로 뭉쳤다.

이날 전국에서 70여 명의 사진작가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동참하는 등 첫 번째 전국가족모임이 화가애한 가운데, 추억의 장을이룬 정모가 되었다.

회장 엄영수 목사는 바쁜 일정에도 전국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하여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협회를 사랑하는 총정에서 비롯되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엄 목사는 협회가 재건되어 아직은 체제가 탄탄하지 못해서

기획된 행하였기에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이를 잘 따라 주었으며, 70여 명의 식사와 간식 등을 책임지고 수고한 준비위원장 주승철 집사와 봉사활동에 힘써

목사, 이상중 목사, 주승철 집사 등이 포토샵강해와 사진촬영에 있어서 실제와 이론에 대해 명 강의를 펼쳐졌으며 회원들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전국가족모임 기념촬영

"신학생은 이땅에소망이어야한다"

23rd GST 3박4일 여름훈련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교단인정 신학교 재학생 남·여

- 일 시 : 2009년 8월 17일(월)~20일(목)
- 접수마감 : 2009년 8월 10일까지 - 입금후 등록신청
- 장 소 :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 032)937-9724
- 등 록 비 : 5만원
- 입 금 : 하나은행 484-810224-97607(조성근)
우체국 104000-02-069630(조성근)
- 문 의 : 031)473-2494 / 010-3223-2494

대표 조성근 목사

-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강화) 담임목사
-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 총신대학교 (Th.M., / Th.D, cand)
- * 미국 ORU (D.Min.)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군사훈련본부

THE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TRAINING CENTER
TEL. 031)473-2494, 0502)777-2494 / www.gst.or.kr



GST는 THE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TRAINING CENTER의 약자입니다. GST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세계를 꾸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가꾸어 지는데 있어서 신학강의가 아닌 실제 사역을 위한 훈련을 목표로 하는 신학생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은 정규 신학교(신대원 포함)에 재학중인 자들로 각 학교별 동아리, 학회 활동이 있고, 연합하여 매월 1회 철야기도회가 있으며 1년 2회 등·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